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군산항 남서쪽 19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한 군산해경이 단속을 위해 고속 단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군산해경 3010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지킬 바다 넓어졌지만 인원·장비 제자리

중국어선 EEZ 침범 왜 잦아 /군산해경 3010함=이종행기자

## 중국 연안 황폐화에 한국 황금어장 호시탐탐 EEZ 확대되며 경비정·인력 부족 단속 한계 저인망 선단 이뤄 흥기 무장한 채 '배짱 조업'

지난 10일 발생한 중국 선원 사망 사건은 우리측 황금 어장을 지키려는 해경의 목숨을 건 대응에서 비롯됐다. 해경은 당시 고속 단정으로 고장 나 매뉴얼(15명)에 따른 투입 인원을 지키지 못한 채 특수기동대원을 투입했다가 수십명의 중국 선원들의 거친 저항을 제압하던 중이었다. 적은 인원과 열악한 장비로 인해 해경은 불법 조업 단속을 나설 때마다 극렬한 저항을 뚫고 받아내야 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처벌 수위도 훨씬 강화됐지만 중국 어선들은 우리측 황금 어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저별강화·실효 없어=해경은 지난 2007년 3월 EEZ 침범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종전보다 1.5~2배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군산해경이 지난 2012년 8억 200만 원을 비롯, 지난해 21억3500만 원을 들어 이날 현재 1500만 원 등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담보금을 감수하고 우리측 해역으로 몰리는 중국 어선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해양경찰이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나포한 중국 선박은 지난 2010년 370척을 비롯, 2011년 534척, 2012년 467척에 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서해에서만 단속한 중국 어선도 216척에 이르는 등 불법 조업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조업 선원들의 처벌도 강화했지만

효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2004년 2월부터 적용된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조항은 선장뿐 아니라 기관사·항해사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담보금을 내지 못해 구속된 중국 선원들은 2년10개월 간 모두 46명이며 검거된 외국선박 수는 68척이다.

◇면적 확대·진압장비는 제자리=우리측 EEZ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크게 넓어진 것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부채질하고 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관할로 넘어온 과도수역은 전남 면적의 1.02배인 1만2188km<sup>2</sup>.

기존 EEZ(1만2910km<sup>2</sup>)를 포함할 경우 2만5098km<sup>2</sup>에 달해 종전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비함이 시속 20노트(시속 37km)의 최고속도로 가더라도 목표에서 최첨단 경계선까지는 6시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장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군산해경 경비정과 인원은 250~3000t급 5척과 350여 명이 전부. 이중 먼바다인 EEZ를 맡을 수 있는 1000t급은 2척뿐이다. 고속단정도 20노트 이상 달리는 중국 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꼽히지만 교체 계획은 터디기만 하다. 해경은 44대를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고작 44%만 교체해 이뤄졌을 뿐이다. 쇠장살을 끊고 철판을 두른 중국 어선을 오르키 위한 등산 장비는 시범 보급만 돼 있을 뿐 본격적인 투입은 뒷전으로 밀려



16일 새벽 불법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각종 어획물이 가득 차 있다. /군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 합정 인명구조장비 보강 계획 (자료:해양경찰청)

장비명	규격	소요 예산(원)	보강계획
구조장비세트	5	1.02억(204세트)	계약:14년 11월, 납품:14년 12월
등선사다리	등선용	6.06억(202개)	계획:15년 2월, 계약:15년 3월, 납품:15년 6월
휴대용구명뗏목	10인승	8.7억(274개)	납품:14년 12월(10대시범적용), 계획:15년 2월 계약:15년 4월, 납품:15년 6월
고무보트	8인승	7천만(10대)	납품:14년 12월
잠수장비	11종세트	4.9억(117세트)	계획:15년 1월, 계약:15년 3월, 납품:15년 4월
잠수복	건식	9천6백만(48벌)	계획:15년 1월, 계약:15년 3월, 납품:15년 4월
구명환발사기	에어식	10.3억(202개)	계획:15년 2월, 계약:15년 3월, 납품:15년 5월
등산화	등선용	5천만(750족)	검토:14년 10월, 계획:15년 2월, 계약:15년 4월, 납품:15년 6월

있는 상황이다.

장비도 가스총·전자총격기·경찰봉·삼단봉·K5 권총·최루액 분사기·방패·40mm 6연발사기 등 불교, 흥기로 무장한 중국어선에 승선시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다.

◇왜 침범 잦아=중국 동해연안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오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황폐화되고 남획으로 고기씨가 말라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단이 구속 수사와 담보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측 해역을 노리는 이유다.

특히 선단을 이룬 중국어선 대부분 쌍

끌이 저인망 어선으로 배 두 척이 그물을 밑바닥까지 끌고 가면서 치어와 잡어류까지 마구잡이로 포획, 황금어장이 형성된 해역의 자원고갈을 가져오고 있어 불법 조업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불법 조업 방지대책'의 하나로 '한·중 어업 쿼터 협상 시 불법 조업 적발 추이 등과 다음해 조업 쿼터를 연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golee@kwangju.co.kr

## 기적 아닌 유비무환의 힘

### 전남대병원 신속 응급처치...경찰관 3일만에 의식 회복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이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 저체온치료로 의식을 회복했다.

1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출근길에 나섰다가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응급의료센터에 온 경찰관 이모(45) 경위가 신속한 처치와 협진에 이은, 저체온 치료로 3일 만에 완전히 의식을 되찾게 했다.

의식불명의 심정지 환자가 후유증 없이 정상 회복되는 확률은 4% 이하로 기적이라 할 만하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쓰러진 지 30여분 만에 도착한 이경위에 대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 심정지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순환기내과와 협진해 심장혈관 조영술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우측 관상동맥이 막힌 심근경색으로 밝혀지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시행해 협압을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뇌손상 방지와 의식 회복을 위한 저체온치료에 돌입했다. 체온을 32~33도까지 낮춰서 24시간 유지 후 서서히 정상체온으로 올리는 3일간의 저체온 치료를 마친 뒤 이경위는 극적으로 정상 회복했다.

/채희종기자 chae@

### 빈 아파트 촛불 넘어져...스프링클러 작동 참사 막아

비어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촛불이 넘어져 자칫 큰 불이 날 뻔했으나 화재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신속히 작동해 화를 면했다.

지난 15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H아파트 19층에서 검은 연기가 현관 밖으로 나왔다. 집 주인 배모(55)씨가 오전에 출근하면서 집안 냄새를 없애려고 현관 수납장 위에 촛불을 켜 두고 출근했다가 초가 기울어 지면서 불이 붙었다.

그러나 실내에 설치된 화재탐지기가 감지해 비상벨이 울리자 경비원 유모

(65)씨가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신속히 진화됐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거실 벽이 조금 타고 수납장과 화분 등 40여 만원의 재산피해로 그쳤다.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15층을 넘는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집주인이 없어 찾으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서 천만다행이었다"며 안도했다.

/백희준기자 bhj@

### 이낙연 지사 기소의견 송치

#### 순천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은 지난 15일 이낙연 전남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 거운동)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뤄진 것이지만 검찰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

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있는 자리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종진)는 16일 전남지사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 1800만원 가량을 대납한 혐의로 이 지사 측 순천지역 선거사무소 관계자 조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이미 기소된 전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7)씨에 대해 1000만원 가량을 대납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 출소 15일만에 또...취객에 접근 지갑 훔쳐 출행량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취객에게 접근, 공짜로 술까지 얻어 마시고 지갑마저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47)씨는 지난 5월16일 새벽 4시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B노래방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주모(52)씨의 지갑을 들

고 달아난 뒤, 당일 오후 4시까지 출행량 신용카드를 이용해 6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는 것.

○...김씨는 동종전과로 광주교도소에서 지난 5월 출소한 뒤 15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담당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부동산 경매

-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입장/교육비등 1200만원
- ▶ "돈" 빌려 주실 분! 1순위 근저당으로 보장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 “월산동 근린주택”

- 수리중입니다.
- 싸게 사서 싸게 팔 생각입니다.
- 곧 공개합니다.